

‘제주도에서 일하고 싶어? 쿠팡으로 와’

2022. 5. 17.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제주.

늘 여행객으로 붐비지만, 육지로 떠나는 청년이 많아 고민입니다.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제주도는 젊은이들이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0년, 쿠팡 로켓배송센터 두 곳이 제주에 들어서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의숙 쿠팡친구 - “쿠팡에서 일하면서 좋은 점은 월급, 연차, 휴무가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제주캠프여서 가장 좋은 점은 일하며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구요.”

평생 수도권에 살다가 늘 꿈꾸던 제주살이에 도전한 이들도 있습니다.

낮에는 쿠팡에서 일하고 밤엔 휴양지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죠.

강상호 쿠팡친구 - “쿠팡에 근무하면 일주일에 두 번씩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쿠팡이 제주지역에서 새로 고용한 직원은 약 300명, 간접 고용효과는 1000명에 달합니다.

제주가 로켓배송 생활권이 되면서 지역경제도 활력이 돌고 있죠.

김태연 ‘까사델마마’ 펜션 대표 - “정부 지침으로 객실 수를 제한할 때는 정말 매출 타격이 컸어요.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를 활용해 저희 펜션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여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희 펜션에 오시는 손님들이 급히 뭔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로켓배송으로 시켜드려요. 쿠팡이 없었으면 사업하면서 애들 세 명을 동시에 못 키웠을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나, 소상공인으로서도 쿠팡에 고마운 마음이 크죠.”

쿠팡 로켓배송이 제주도에 들어온 후, 실제로 쿠팡에 입점한 제주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35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3대째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 꿀농사를 짓는 양제현 님은 쿠팡 입점 후 매출이 30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양제현 ‘굴메달’ 대표 - “로켓배송의 편리함 때문에 쿠팡에 입점했습니다. 판매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판매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쿠팡에서 판매를 집중해볼 생각입니다.”

제주에서 고용과 소비가 함께 살아나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쿠팡의 로켓배송 덕분에 지역경제도 살고 제주의 물류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상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쿠팡은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공급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